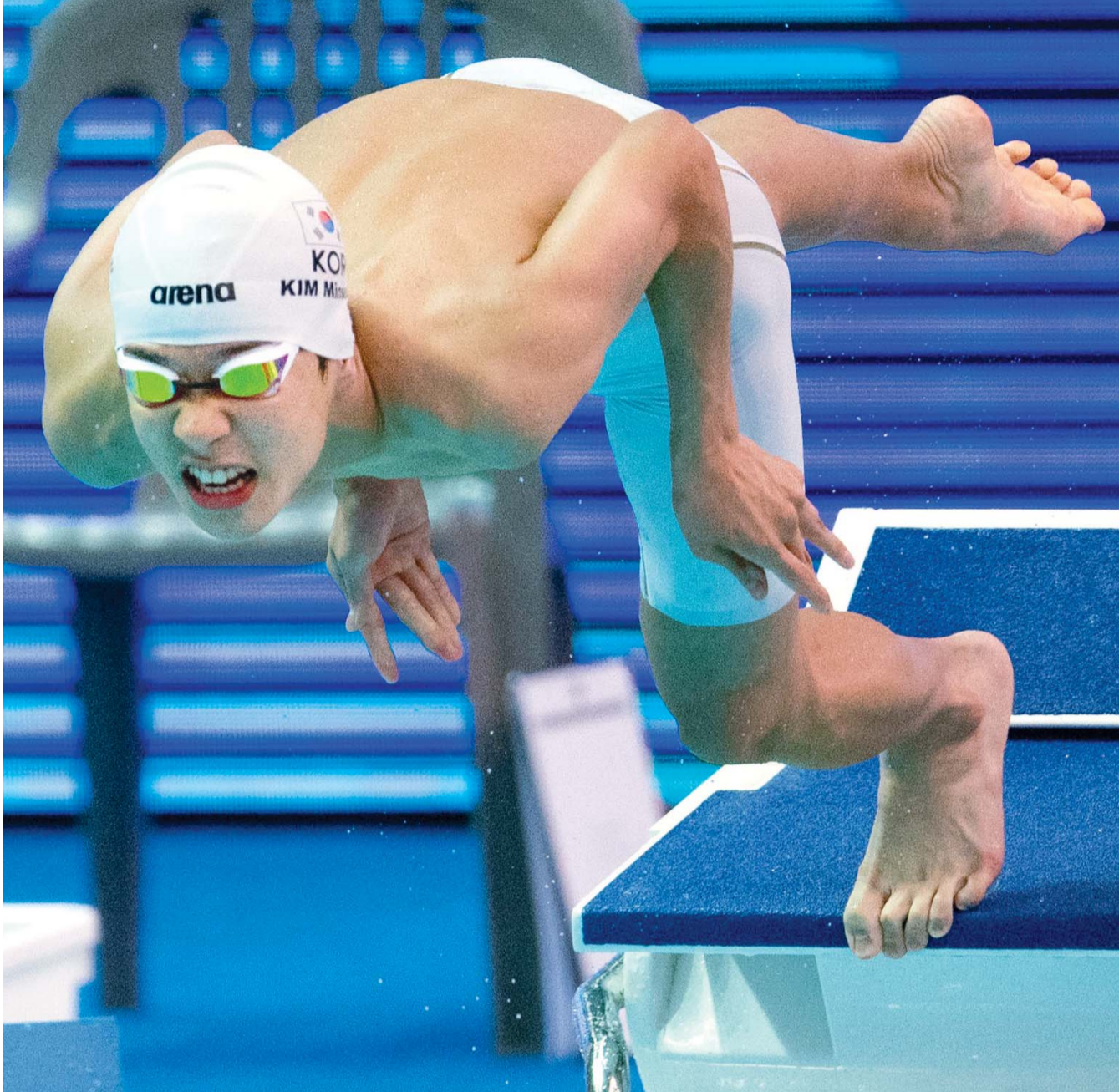


‘제2의 박태환’ 김민섭에 쏟아진 갈채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광주세계수영대회

여수문수중학교 3학년
 국제무대에서 어른들과 경쟁
 접영 200m 47명 중 32위
 내년 도쿄올림픽 기대
 물감 좋고 물이 잘받는 체질
 “몸도 성적도 성장할거예요”



‘한국 수영의 미래’ 힘찬 출발

23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200m접영 경기에서 한국의 김민섭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2분00초95’, ‘접영 200m 예선 전체 47명 가운데 32위.’

여수문수중학교 3학년 김민섭(15)의 첫 국제무대 도전이 마무리됐다. 23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레이스를 마치고 거친 숨을 붙여쉬는 소년에게 우레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성인대표를 상대로 당당하게 레이스를 펼친데 대한 격려이자, 대한민국 수영의 미래를 기원하는 박수였다. <관련기사 2·3·22면>

김민섭은 대한민국 남자 경영 대표 선수 가운데 유일한 중학생이다. 2004년 박태환이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이래 두번째로 세계대회에 출전한 중학생 국가대표다. 박태환은 당시 긴장한 탓에 자유형 400m 예선에서 부정 출발로 탈락한 바 있다.

이날 4조 9번 레인에서 경기를 치른 김민섭은 마치 골리앗 틈에 서 있는 다윗처럼 체격 차가 확연했다. 신장이 170cm에 못 미치고 근육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으나 당연한 모양새다. 하지만 김민섭은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

예선 주자 9명 중 가장 늦게 터치패드를 찍었지만, 그의 레이스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것이었다. 김민섭은 경기를 마친 후 “솔직히 외국선수를 덩치를 보니 많이 떨렸다”고 털어놨다.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는데”라며 아쉬워한 그는 “열선수가 치고 나가는 데 따라가려해도 막판에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한참 성장기라 키가 크고 있어, 근력운동처럼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민섭의 이번 대회 출전 목표는 1분57초.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한 커트라인(기준)이다. 목표 기록에는 못미쳤지만, 대한민국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정말 잘했다”며 등을 토닥였다.

김민섭은 ‘될성부른 떡잎’이다. 지난 5월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9 수영(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접영 200m에 출전해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1분58초12의 기록으로 성인, 실업팀 선배들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는 안중택 전 국가대표 총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재능을 다듬고 있다. 안 감독은 국가대표 정다래, 백수연 선수를 키운 조련사다. 안 감독은 “사실 올 때까지 우리의 최종 목표가 1분58초였는데, (김민섭의) 기량이 너무 일찍 올라오는 바람에 광주세계수영대회까지 오게 됐다”며 “목표는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이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수영계에서는 김민섭에 대해 ‘물감(感)’이 뛰어나고, 물이 잘받는 체질을 타고 났다고 평가한다. 김민섭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물맛담’을 했다. 아버지이자 현재 문수중학교 체육교사인 김형영씨의 손

에 이끌려 수영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소년체전 은메달(접영 50m)을 따내는 등 소질을 보였다. 모든 스타일을 접한 뒤 가장 잘 맞는 접영을 ‘인생 종목’으로 택했다고 한다. 김민섭은 “반드시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해 성적을 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한편, 2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경기장에서 열린 경영 종목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은 모두 예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평영 50m 문재권(서귀포시청), 자유형 800m 김우민(부산체고 2년), 여자 자유형 200m 조현주(울산시청) 등 4명은 세계의 높은 벽을 절감했다. /특별취재단=윤영기 기자 penfoot@



23일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사진)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연합뉴스

靑, 러시아에 강력 항의

러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360여발 경고사격
 “사태 매우 엄중 ... 되풀이 뎀 더 강력한 조치”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이후 니콜라이 파르투세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합참은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이날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고, 이에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출격된 공군 전투기는 독도 인근 영

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을 향해 1차 침범 때는 미사일 회피용 플래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을, 2차 침범 때는 플래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

중공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물론 다른 국가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조종사 실수인지 등 왜 그렇게 했는지 상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해야 다음 단계를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한 러시아 및 중국 대사관과 국방무관을 조치해 항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추경·일본 보복대응 국회가 힘 모아달라”

문 대통령, 민주당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 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

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 및 추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당정청 관계 속에서 상반기에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90일째 표류 중인 추경에 대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민생과 국익이라는 원칙 하에서 유연하게 현 상황을 돌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선수권대회 2019.7.12. ~ 7.28. (17일간)
마스터즈대회 2019.8.5. ~ 8.18. (14일간)

Official FINA Partners

National Sponsors

Official FINA Suppliers

National Suppliers

National Supporters